

효성, 수입차 시장 지형도 확 바꾼다

**벤츠·도요타·렉서스 이어 마세라티·페라리 판매
조현상 부사장 주도 ... '메가 딜러' 시대 열어**



조현상 부사장

차 브랜드를 취급할 경우 수입차 법인과 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며, 각 계열사와 판매 및 서비스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입차 시장 규모가 큰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미 메가 딜러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혼다, 재규어, 랜드로버, 인피니티 등을 수입하는 KCC정보통신 한 곳 정도가 메가 딜러로 꼽히고 있을 뿐이다.

■ 최근 5년간 수입차 판매량 추이
(단위:대)

연도	판매량
2010	9만562
2011	10만5037
2012	13만858
2013	15만6497
2014	19만6359

〈자료:한국수입자동차협회〉

■ 효성그룹 수입차 딜러 사업 현황
(단위:원)

회사	수입차브랜드	설립 시기	매출 (2013년)
더클래스효성	메르세데스벤츠	2004년	3644억
효성도요타	도요타	2008년	897억
더프리미엄	렉서스	2010년	333억

〈자료:효성그룹〉

2004년 수입차 딜러 사업에 처음 뛰어 들었던 효성그룹이 앞으로 마세라티와 페라리 등 고급 수입자동차 판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효성 관계자는 "12조 원에 이르는 그룹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편이 아니지만 국내 고급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향후 성장성을 고려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세라티는 지난해 국내에서 전년(2013년) 대비 469% 증가한 723대를 팔았다. 올해에는 인기 모델 '기블리'를 중심으로 판매량을 70% 늘릴 계획이다. 페라리 역시 지난해 국내 사전예약 대수가 100대를 돌파했다. 2013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국내에서도 여러 수입차 브랜드를 취급하는 '메가 딜러'의 시대가 왔다고 보고 있다. 여러 수입

차 브랜드를 취급할 경우 수입차 법인과 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며, 각 계열사와 판매 및 서비스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입차 시장 규모가 큰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미 메가 딜러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혼다, 재규어, 랜드로버, 인피니티 등을 수입하는 KCC정보통신 한 곳 정도가 메가 딜러로 꼽히고 있을 뿐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국내 법인은 차를 본사로부터 수입해 온 뒤 딜러사에 넘기고, 딜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통상 수입차 법인과 딜러사는 전형적인 '갑을 관계'로 볼 수 있다"며 "여러 브랜드를 취급할 경우 가격 협상 등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효성의 주력 업종인 섬유 및 소재 사업이 자동차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이번 인수를 추진

한 배경으로 꼽았다. 효성은 타이어의 소재인 타이어코드를 에어백 및 안전띠 소재 분야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인 업체다. 또한 효성이 생산하는 탄소섬유와 폴리케톤은 완성차 업계에서 주목하는 자동차 신소재로 꼽힌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마세라티 기블리.



페라리 488 GTB.

광주·전남 국민연금 수급자 30만명 넘었다

국민연금공단, 지난해 9293억 지급

광주·전남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30만 명이 넘었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의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30만3694명에게 9293억 9600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지역 수급자는 9만1754명으로 3203억1300만원이, 전남지역 수급자는 21만1940명으로 6090억83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광주 5개 구 중에는 북구가 2만8808명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전남에서는 여수시가 2만6272명으로 수급자가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 노령연금 수급자는 23만 797명이며 장애연금은 5222명, 유족연금은 5만2517명이 받았으며 이중 7988명이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연금 수급자(일시금 제외)의 성별로는,

남성이 17만1232명(57.9%), 여성이 12만 4474명(42.1%)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61세 이상 인구 68만981명 중 39.3%인 26만7542명이 국민연금을 받았다. 특히 화순군의 경우 61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8303명으로, 61세 이상 인구(1만8122명) 중 45.82%가 국민연금을 받아 인구대비 수급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수급자 중 최고연금액은 월 151만6100원(여수

시)이다. 광주·전남 부부수급자는 1만2001쌍으로 부부합산 최고연금액은 201만1060원이다. 이종신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맞춤형 노후설계를 통해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을 수 있도록 연금 수급자를 확대하고 국민연금이 고령화 사회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2014년 한해 국민연금공단은 375만명의 수급자에게 13조 7799억원의 연금(매월 1조 1483억원)을 지급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37.89 (+9.44)
- ▼ 금리 (국고채 3년) 1.83% (-0.03)
- ▲ 코스닥 631.81 (+2.82)
- ▼ 환율 (USD) 1117.20원 (-12.70)

신보·농협·전남지식재산센터, 강소기업 금융지원 협약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전남지식재산센터는 19일 농협은행 전남본부 중회의실에서 전남 지식재산 강소기업 보증·금융지원 공동협약을 맺었다. 이번 공동협약은 전남지식재산센터가 발굴한 전남지역 내 지식재산 강소기업에 대해 신보와 농협이 보증·금융 우대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신보에 추천하면 신보가 해당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진행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농협은 신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금리우대(최저 1.0%~최고 2.5%)조건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공동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윤현기 신보 호남영업본부장 "추천된 전남 소재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아파트 전셋값 0.38% 상승 ... 전국 2위

3주 연속 상승폭 커져

봄 이사철을 맞아 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를 비롯한 전국 아파트의 전셋값이 3주 연속해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주간 전셋값은 0.25% 오르며 지난주(0.23%)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2월24일 조사(0.25%) 때와 같은 변동률이다. 전국 기준 45주 연속 상승세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0.57%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시가 0.38%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충북(0.27%), 대구(0.25%), 부산(0.24%) 등으로 상승폭이 컸다. 수도권(0.31%)에서는 서울이 0.33%로 지난주(0.31%)에 비해 오름폭이 0.02%포인트 커졌고, 인천은 지난주(0.21%)에 비해 0.07%포인트 높은 0.28% 상승했다.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세다. 전국이 0.15% 올랐고 수도권이 0.17%, 지방이 0.13% 상승했다. 서울도 0.18%로 지난주와 같았다. 광주시가 0.39%로 오름폭이 가장 컸고, 대구(0.24%)·제주(0.24%) 등 세종시(보합)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임동률기자 exian@

광주 각화동 골드클래스 중저가 716세대 분양

광주지역 분양시장에 봄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북구 각화동 골드클래스가 저렴한 분양가 등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 북구 각화동 122-1번지 일대에 세워지는 각화동 골드클래스는 지하 1층, 지상 13~25층으로 구성된 716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조감도〉

각화동 골드클래스는 제 2순환도로 각화 IC와 동광주 IC를 통해 광주 전지역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것은 물론 도심 진출 입도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또, 동광주 홈플러스와 농산물 도매시장과도 가까운데다 각종 전시장과 체험장을 갖춘 시화문화마을을 바로 옆에 두고 있어 풍요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각화초등학교와 각화중학교가 있으며, 무등도서관을 비롯한 학습 제반시설이 풍부하여 좋은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도 장점이다. 각화동 골드클래스는 59㎡, 71㎡, 84㎡의 평형대로 수요층이 가장 많은 중소형에 집중되어 있으며 6가지 유닛을 제시하여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중저가 분양가를 제시함으로써 울 상반면 분양 시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 각화동 골드클래스는 20일에 분양을 시작하며 모델하우스는 서구 쌍촌동 956-7번지에 있다. 문의는 1600-4119.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오늘의 신문은]

세계 명사들의 특강

신문을 읽으며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을 만납니다
그들의 생각과 지식이 나의 논리가 됩니다
신문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누구나 배운다
"신문은 가장 큰 학교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